

# 錦江流域 松菊里文化段階의 支石墓 檢討

孫 峻 鎬 \*

## 목 차

- I. 머리말
- II. 松菊里文化段階의 支石墓遺蹟 現況
  - 1. 松菊里型住居址와 支石墓가 共伴하는 遺蹟
  - 2. 松菊里型墓制와 支石墓가 共存하는 遺蹟
  - 3. 松菊里型墓制에 支石墓 要素가 反映된 遺蹟
- III. 類型의 設定
- IV. 類型別 性格檢討
- V. 맺음말

## < 요약 >

최근 조사된 몇몇 유적에서 송국리문화단계에 지석묘가 발견되거나, 또는 지석묘문화의 요소가 확인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유적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지석묘문화와 송국리문화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송국리문화가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송국리문화단계에 확인되는 지석묘, 또는 지석묘 요소의 양상을 파악하여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결합하는 양상은 3개의 유형으로 설정된다. I 유형은 송국리형주거지가 지석묘와 공반하며, 송국리형묘제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지석묘는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II 유형에서도 확인되는데, 1기 또는 소수의 지석묘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송국리형묘제와 공존하는 양상은 지석묘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유형에서도 지석묘 요소가 반영된 분묘가 입지상 우위를 보이는 것은 II 유형과 동일한 점이다. 다만, 입지상 중심이 되는 송국리형묘제가 출토유물이나 규모면에 있어서도 다른 분묘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II 유형 지석묘의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有力者의 분묘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III 유형의 유적은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에 해당되며, 지석묘문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I·II 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은 송국리문화의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며, 지석묘문화의 영향이 보다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하여 금강유역에 있어서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는 일정한 지역성을 띠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충남발전연구원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扶餘郡 草村面 松菊里遺蹟은 1974년 琵琶形銅劍이 부장된 석관묘가 발굴됨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sup>1)</sup>, 197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한반도 청동기시대에 획기를 이루는 중요한 유적임이 확인되었다.<sup>2)</sup> 송국리유적의 발굴조사 이후로 동일한 문화상을 보이는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어 '松菊里類型'이 설정되고<sup>3)</sup> 하나의 문화유형으로서 성립되었으며<sup>4)</sup>, 그 성격이 정착적 농경문화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였음이 밝혀졌다.<sup>5)</sup>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중앙에 타원형토광을 설치한 松菊里型住居址<sup>6)</sup>와 稻作의 성행에 수반되어 고안된 三角形石刀<sup>7)</sup>, 斜刀과 長方形 또는 梯形 횡단면의 有溝石斧<sup>8)</sup>, 抹角平底의 주머니형 丹塗磨研土器<sup>9)</sup>, 縮約된 저부·長卵形의 배부른 동체부·짧은 外反口緣을 특징으로 하는 松菊里型土器<sup>10)</sup> 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송국리문화 요소가 확인되는 단계의 묘제로는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다. 金承玉은 이를 '松菊里型墓制'로 명명하고 무문토기시대 전기말에서 중기에 한반도 중서부지방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남부지방 전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1)</sup> 또한, 그는 송국리형묘제와 지식묘는 상호간에 공반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평지에 위치하거나 하천 방향으로 배치된 송국리형묘제, 이

- 1) 金永培·安承周, 1975, 「扶餘 松菊里 遼寧式銅劍出土 石棺墓」『百濟文化』(公州師範大學附設 百濟文化研究所)7·8.
- 2) 송국리유적의 발굴조사는 199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최근에 발간된 발굴보고서(國立扶餘博物館, 2000, 『松菊里 VI』, 6.)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 3)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韓國上古史學報』(韓國上古史學會)1, 67-72.
- 4) 安在晧, 1992, 「松菊里類型的 檢討」『嶺南考古學』(嶺南考古學會)11.
- 5) 李弘鍾, 2000, 「우리 나라의 초기 수전농경」『한국농공학회지』(한국농공학회)42-3, 8.
- 6) 李健茂, 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一潮閣).
- 7) 金相冕, 1985, 『三角形石刀의 一研究』(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7-34. 崔仁善, 1985, 「韓國交刃石刀에 對한 考察」『全南文化』(全南大學校 全南文化研究會)3, 25-30.
- 8) 蘆櫛眞, 2001, 「有溝石斧 再檢討」『古文化』(韓國大學博物館協會)57, 5-6.
- 9) 河仁秀, 1992,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嶺南考古學會)10, 34.
- 10) 李弘鍾, 1993, 「松菊里式 土器文化의 登場과 展開」『先史와 古代』(韓國古代學會)4, 115.
- 11) 송국리형묘제로 설정된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는 한반도는 물론 그밖의 지역에서 송국리문화와 관련없이 확인되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설정을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검토 대상지역을 금강유역으로 한정할 경우 타당한 유형 설정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송국리형묘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단의 묘광이나 이중개석을 갖춘 지석묘 등을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가 혼합된 결과로 보았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사된 몇몇 유적에서 송국리문화단계에 지석묘가 발견되거나, 또는 지석묘 요소<sup>13)</sup>가 확인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또, 기존에 조사·보고된 유적 가운데에서도 지석묘, 혹은 지석묘 요소의 존재가 간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록 아직까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유적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지석묘문화와 송국리문화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송국리문화가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는 금강유역<sup>14)</sup>을 중심으로 송국리문화단계에 확인되는 지석묘, 또는 지석묘 요소의 양상을 파악하여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송국리문화단계에 해당하는 유적 가운데에서 지석묘가 확인되거나, 지석묘 요소가 송국리형묘제에 영향을 미친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III장에서는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결합하는 각각의 양상을 3개의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IV장에서 각 유형의 성격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유적의 존재가 소수에 불과하며, 이 또한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논지의 전개에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松菊里文化段階의 支石墓遺蹟 現況

본장에서는 송국리문화단계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첫째는 송국리유형의 유적 내에 송국리형묘제가 확인되지 않고 지석묘가 발견된 유적이다. 물론, 이러한 유적의 경우 지석묘에서 유물이 출토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석묘와 송국리형주거지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송국리형묘제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 사이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보령 주교리유적·죽청

12)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45, 55-56.

13) 지석묘 요소란 일반적인 송국리형묘제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지석묘에서는 빈번하게 간취되는 속성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II장에서 언급하였다.

14) 宋滿榮, 2001,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的 構造와 變化」『한국 농경문화의 형성』(제25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77.

리유적, 대전 대정동유적이 있다.<sup>15)</sup>

둘째는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공반하는 유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몇몇 유적의 예가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이 제한된 범위의 지석묘 발굴시에 송국리형묘제가 확인된 경우이다. 최근에 보고된 보령 평라리유적과 관창리유적은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으로 묘제와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어 보다 명확한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송국리형묘제에 지석묘 요소가 반영된 유적이다. 이러한 유적에서는 대형의 상석과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지석묘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지석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석묘 요소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蓋石의 性穴, 매장시설에서의 석곽구조, 하부구조가 없는 大型石의 존재, 그리고 비파형동검의 출토를 지석묘 요소로 간주하였다. 지석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석묘 요소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유적·나복리유적과 공주 산의 리유적이 있다.<sup>16)</sup>

한편, 각각의 유적에 대한 기술은 발굴보고서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정식으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유적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담당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내용의 전재를 허락해준 관련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 1. 松菊里型住居址와 支石墓가 共伴하는 遺蹟

### 1) 保寧 舟橋里遺蹟<sup>17)</sup>

주교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와 지석묘 1기, 소형수혈유구 17기 등이 확인되

15) 최근 조사된 大田 紫雲洞·秋木洞遺蹟(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2. 『大田 紫雲臺 軍事施設工事 事業敷地內 紫雲洞·秋木洞遺蹟 發掘調査 現場説明會 資料』)도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가 공반하는 유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 4기와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비록 주거지와 분묘의 위치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모두 분지형을 이루는 지형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축조·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실견한 바에 의하면 지석묘의 형식은 적석시설을 갖춘 탁자식으로 판단된다. 한편, 석관묘는 균집을 이루지 않고 1기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송국리형묘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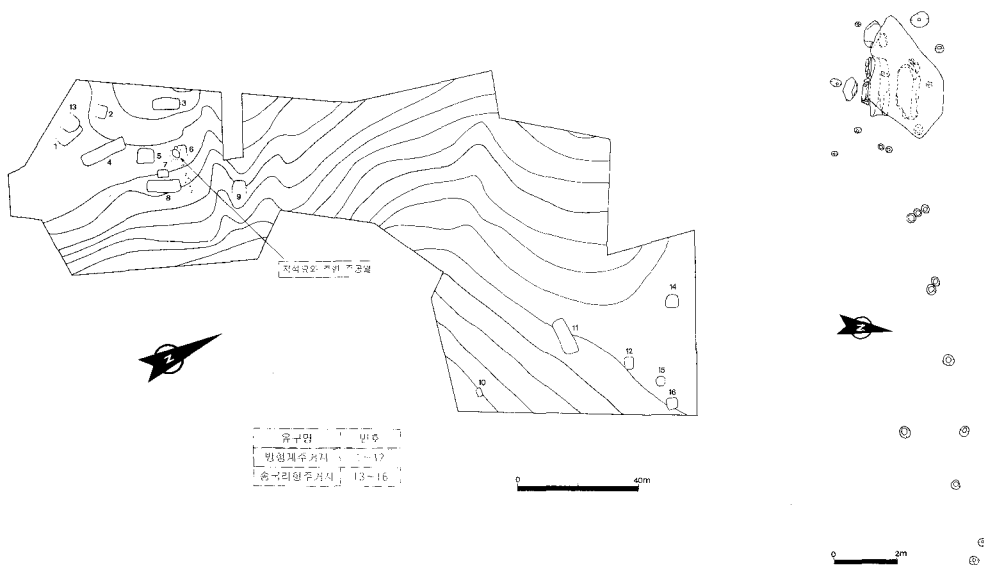
16) 이밖에 舒川 烏石里遺蹟(李南奭, 1996. 『烏石里遺蹟』(公州大學校博物館))도 하부구조가 없는 대형석과 함께 송국리형묘제가 배치된 형태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상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발굴담당자의 전언에 의하면 발굴 당시 분묘군 내부에 대형석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17)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998. 『서해안 고속도로(당진-서천구간) 제6공구 주교리·연지리유적 발굴조사 중간 약보고서』.

었다(도 1).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과 북쪽 구릉에 고르게 분포하는데, 평면형태상 방형계(방형+장방형+세장방형)주거지가 12기, 송국리형주거지가 4기이다. 중복관계에 의해 방형계주거지보다 송국리형주거지가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1기가 발견되었는데, 조사지역의 남쪽에 해당하는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으로 괴석형의 상석과 2개의 장벽석이 쓰러진 상태로 조사되었다.<sup>18)</sup> 지석묘가 방형계주거지의 상층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지석묘의 축조시기는 방형계주거지보다 늦은 시기, 즉 송국리형주거지와 동일한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지석묘의 주변과 경사면 아래쪽으로는 다수의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주공은 지석묘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싸며, 경사면 아래쪽으로는 약 2m 간격으로 배치된다. 주공의 규모는 대



<도 1> 주교리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배치도 및 지석묘와 주변 주공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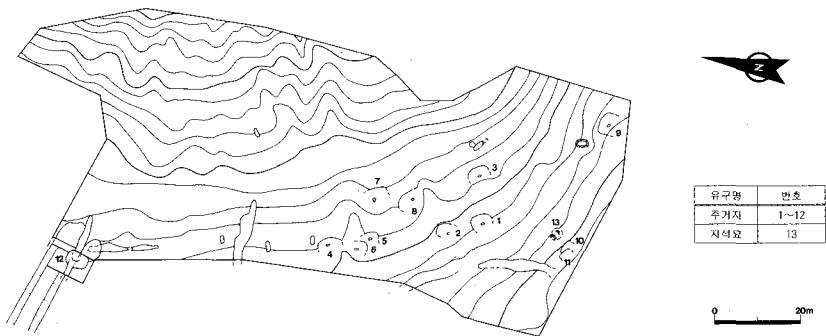
18) 지석묘의 형식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李榮文(2001, 『韓國 支石墓의 特徵과 그 社會의 性格』 『高敞 고인돌 遺蹟地 表調査報告』(湖南文化財研究院), 431-433.)의 분류안을 채택하였다. 그는 지석묘의 형식을 卓子式, 基盤式, 蓋石式, 濟州式으로 구분하였는데, 본고에 제시된 지석묘 가운데 그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는 탁자식과 개석식이 있다.

부분 10~20cm의 크기에 지표면으로부터 약 10cm의 깊이를 나타내는데, 지석묘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2개의 주공은 지표면으로부터 각각 30cm, 38cm로 계측되어 차이를 보인다. 지석묘의 주변에서 이러한 주공이 조사된 예는 일찍이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로서 주공의 배치상태나 2개의 주공이 특히 깊은 것을 볼 때, 지석묘와 관련된 시설물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단계에서 이 시설물의 구체적인 구조나 성격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지석묘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싼 것은 지석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경사면에 一列로 배치된 주공은 지석묘로 통하는 墓道로서의 구조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 2) 保寧 竹清里遺蹟<sup>19)</sup>

죽청리 '가'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주거지 12기와 지석묘 1기가 확인되었다(도 2). 주거지는 조사지역 남서사면에 분포하는데, 송국리형주거지가 10기, 무시설석노지가 확인된 방형주거지가 2기이다. 출토유물상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모두 동일한 시기에 축조·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묘는 조사지역의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상석과 함께 2개의 벽석이 쓰러진 상태로 확인된 것을 볼 때,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으로 판단된다. 하부구조로는 불규칙하게 배치된 다수의 할석이 조사되었다. 보고자는 이를 매장주체부로 파악하였으나 뚜렷한 근거는 없으며,



〈도 2〉 죽청리 '가' 유적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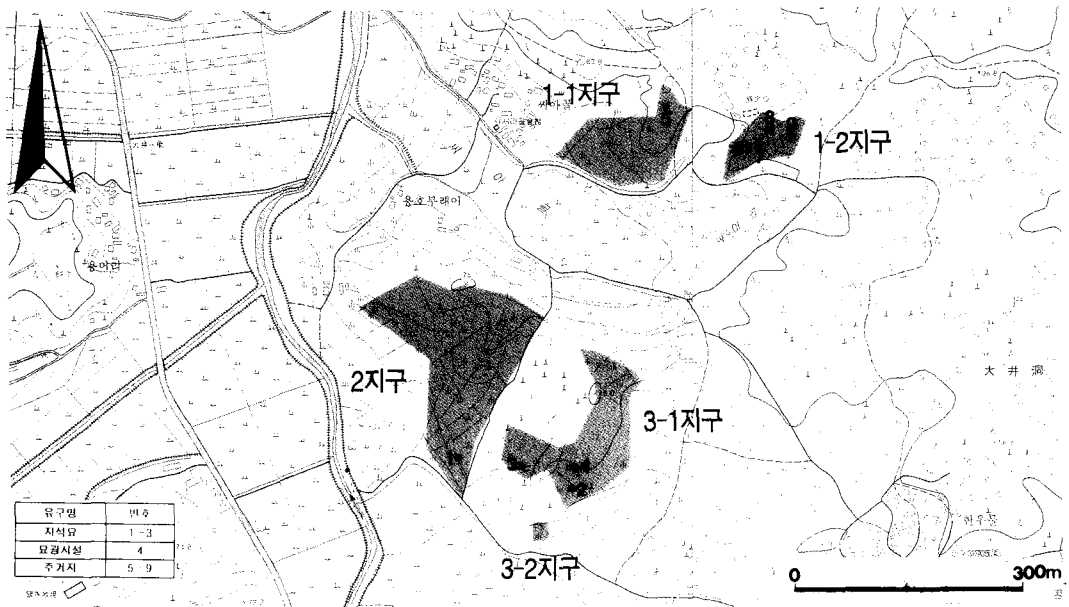
1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西海岸高速道路(藍浦~熊川)建設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오히려 형태상 적석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3) 大田 大井洞遺蹟<sup>20)</sup>

대정동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주거지 5기와 지석묘 3기이다(도 3).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형주거지로, 유적의 북쪽에 해당하는 1-1지구와 1-2지구의 비교적 평탄한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총 3기로 2지구에서 1기, 3-1지구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지석묘의 입지는 모두 구릉 하단부의 평탄면에 조성되어 있다. 1호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으로 판석형의 상석과 벽석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2호 지석묘는 괴석형의 상석만이 조사되었으며, 하부에서 조선 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어 상석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묘의 하부구조로는 상석으로부터 위쪽으로 약 25m 정도 떨어져 위치한 묘광시설이 상정된다. 이 시설은 벽석이 모두 유



〈도 3〉 대정동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배치도

20) 李弘鍾·崔鍾澤·朴性姬, 2002. 『大井洞遺蹟』(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실되고 바닥석만이 확인되었으며, 바닥면의 고저차가 비교적 심한 편이다. 바닥면에서는 소형의 無段式石劍이 1점 출토되었다.<sup>21)</sup> 3호 지석묘는 1호 지석묘와 같은 형식인 탁자식이다. 판석형의 상석과 함께 장벽석, 단벽석이 각 1개씩 쓰러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하부구조로는 다수의 할석이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으며, 도굴갱이 확인되어 후대에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할석들 사이에서 砥石 1점이 출토되었는데, 砥石이 지석묘의 매장시설 내부에 부장된 예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지석묘의 하부에 매장시설은 없었으며, 할석을 이용한 적석시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기의 지석묘는 모두 구조가 다르지만, 약 90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하여 동일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분포범위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이 지역에서 非松菊里文化段階의 유구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주거지와 지석묘를 동일시기의 유구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지석묘에서 출토된 무단석석검도 이러한 추정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sup>22)</sup>

## 2. 松菊里型墓制와 支石墓가 共存하는 遺蹟

### 1) 保寧 平羅里遺蹟<sup>23)</sup>

평라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I 지구에서 분묘군이 확인되었으며, IV 지구에서 송국리형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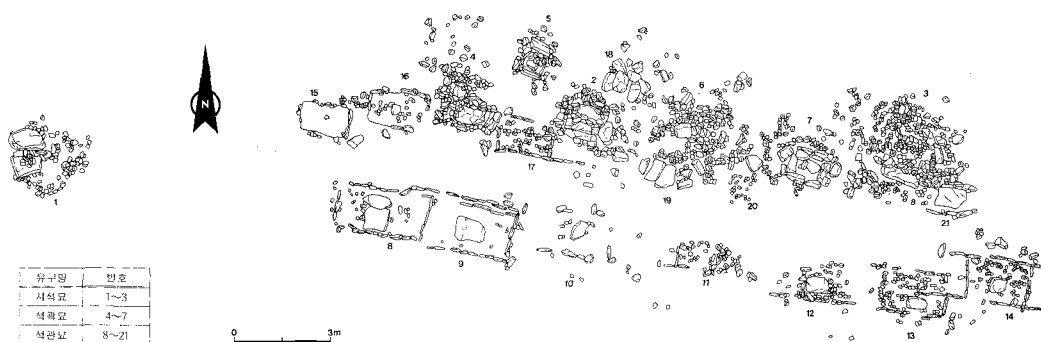
I 지구는 논지역으로 지석묘 3기, 석곽묘 4기, 석관묘 14기가 列狀으로 배치되어 있다(도 4). 크게 2개의 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석묘와 석곽묘가 북쪽열에서만 확인되는데 반하여, 남쪽열에서는 석관묘만이 조사되어 대조를 이룬다. 지석묘는 3기 모두 각각 상석과 함께 석관형의 하부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지석묘 주변으로 다수의 할석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지석묘의 형식은 적석시설을 갖춘 개석식으로 판단된다. 석곽묘는 다수의 할석으로 축조되어

21) 마제석검의 형식은 李榮文(1997. 「全南地方 出土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韓國上古史學會)24, 12-14.)의 분류안을 따랐다. 그는 전남지방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을 크게 有柄式, 有莖式, 無柄式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세분하였는데, 본고에 제시된 마제석검의 형식은 이 가운데 유병 I 식(二段柄式), 유병 II 식(一段柄式), 유병 III 식(無段式), 유경 I 식(長莖式)에 해당한다.

22) 대정동유적 출토 무단석석검은 李榮文 분류안의 유병 III a 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식은 주로 보성강유역의 지석묘에서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과 공반출토되고 있어 송국리문화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23) 이용조·정동찬·우종윤·윤용현·홍현선, 1996. 『평라리 선사유적』(忠北大學校博物館).





〈도 4〉 평라리유적 I지구 유구 배치도

있는데, 묘광의 형태는 장방형 내지 원형이다. 지석묘와 동일한 옆에서만 확인되며, 석곽 주위에 다수의 할석이 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지석묘와의 관련을 상정할 수 있다. 석관묘는 모두 14기가 확인되었는데, 북쪽옆에서는 지석묘와 석곽묘 사이에 7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옆에서도 7기가 확인되었다. 평라리유적의 석관묘는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sup>24)</sup> 먼저 상부에는 장방형의 묘역을 설정하였으며, 그 내부에 개석이 위치한다. 이 개석으로부터 약 30~90cm 정도 내려가면 묘광이 이단으로 굴광되면서 또 다른 개석과 함께 석관이 조성되어 있다. 석관 내부에서 출토된 부장유물로는 長莖式石劍 1점이 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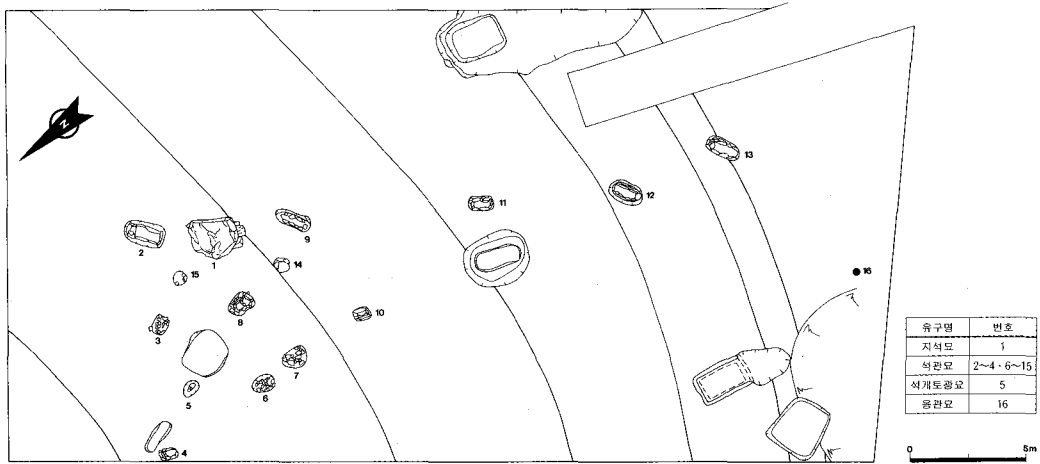
## 2) 保寧 寬倉里遺蹟<sup>26)</sup>

관창리유적은 190여기의 주거지와 함께 요지, 고상가옥, 소형수혈유구, 논유구 등이 확인된 대단위 취락유적이다. 주거지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을 따라서 밀집 분포하는데, 대부분 송국리형주거지로 조사된 주거지의 수에 비하여 중복 축조된 예는 소수에 불과하다.

24) 吳江原(1998, 「保寧 平羅里 발견 '異形石棺墓' (圍牆石棺墓)유적에 관한 考察」『白山學報』(白山學會)50, 13-14.)은 평라리유적 석관묘의 특이구조 가운데 묘표석과 묘역의 존재를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파악하여 '圍牆石棺墓'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5) 평라리유적 출토품은 비교적 소형에 속하며 경부끝이 좌우로 돌출된 형태로, 李榮文 분류안의 유경 I b2 식(長廣莖式)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석검은 송국리유적에서 다수 확인된 바 있어 '松菊里型石劍'이라고도 한다(趙現鏡, 1989, 『松菊里形土器에 대한 一考察』(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0-52.).

26) 吳相卓·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A·F區域 發掘調査報告書』(亞洲大學校博物館).



〈도 5〉 관창리유적 A구역 유구 배치도

청동기시대의 분묘는 A구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도 5). A구역 이외에도 B구역<sup>27)</sup>과 D구역<sup>28)</sup>에서 석관묘 9기가 조사되었으나, 밀집분포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으며 뚜렷한 석관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유구도 많은 것을 볼 때, 관창리유적의 분묘지역은 A구역으로 판단된다. A구역에서 조사된 분묘는 지석묘 1기, 석관묘 13기, 석개토광묘 1기, 그리고 옹관묘 1기이다.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으로 괴석형의 상석과 벽석 2개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조사된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이 지석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지석묘의 남동쪽을 제외한 주변부 전체를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2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양상이 구릉 아래쪽으로 이어져 석관묘가 一列로 배치되고 구릉 최하단부에는 옹관묘가 위치한다. 출토유물은 一段柄式石劍 3점과 無段式石劍 1점, 그리고 二段柄式石劍 柄部片 1점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이단병식석검의 병부편은 금강유역의 송국리형묘제에서는 출토된 바 없는 형식으로, 유구의 대부분이 유실된 3호 석관묘에서 출토되었다. 일단병식석검이 보다 안정된 상태로 부장되어 있으며, B구역에서 조사된 2호 석관묘에서도 일단병식석검 1점과 細長莖石鏃 4점이 출토된 것을 볼 때, 관창리유적 청동기시대의 분묘에는 일단병식석검이 주로 부장되었다고 생각한다.

27) 李弘鍾·姜元杓·孫峻鎬, 2001. 『寬倉里遺蹟』(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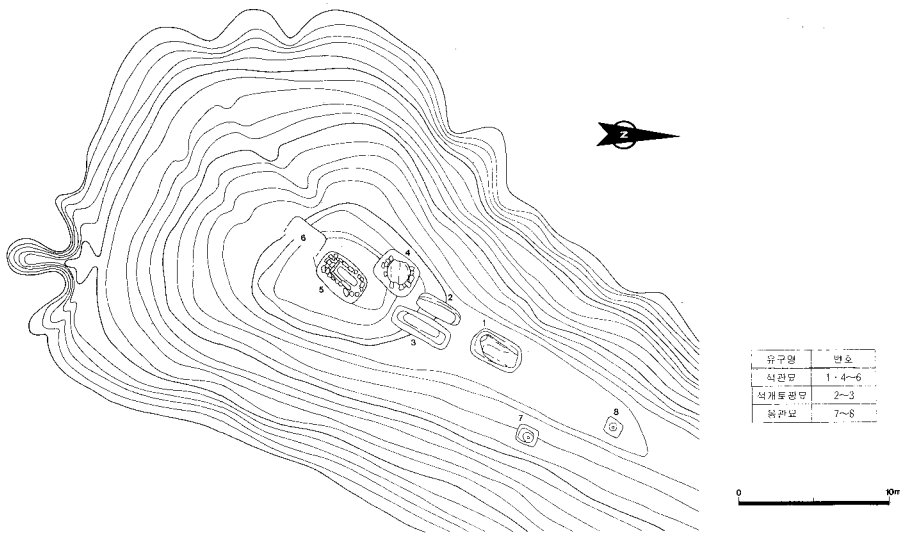
28) 忠南大學校博物館, 1995. 『保寧 寬倉里 住居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 3. 松菊里型墓制에 支石墓 要素가 反映된 遺蹟

#### 1) 扶餘 松菊里遺蹟<sup>29)</sup>

송국리유적에서는 11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42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요지, 저장시설, 분묘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42기의 주거지 가운데 형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40기로 원형이 15기, 장방형이 25기이다. 원형주거지는 모두 송국리형주거지로, 원형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의 관계는 시기적 차이<sup>30)</sup>, 축조 집단의 차이<sup>31)</sup>, 기능상의 차이<sup>32)</sup> 등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분묘군은 크게 2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보고자는 52지구 돌출구릉을 지배자의 묘역으로 보았으며, 송국리유적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남산리분묘군<sup>33)</sup>을 일반성원의 묘



〈도 6〉 송국리유적 52지구 분묘군 유구 배치도

29) 金吉植, 1998, 「扶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韓國考古美術研究所)9.

30) 金吉植, 1994, 「扶餘 松菊里 遺蹟 調査 概要와 成果」 『마을의 考古學』(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185.

31) 金正基, 1996, 「青銅器 및 初期鐵器時代의 竪穴住居」 『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34, 47.

32) 오세연, 1997, 「부여 송국리 유적의 주거양상」 『호남고고학의 제문제』(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171.

33) 尹武炳, 1987, 「公州郡 灘川面 南山里 先史墳墓群」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역으로 상정하였다. 이 가운데 지식묘 요소가 확인된 분묘는 52지구에 존재한다(도 6). 52지구 분묘군에서는 석관묘 4기, 석개토광묘 2기,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列을 이루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식묘 요소가 확인된 유구는 1호와 5호 석관묘이다. 1호 석관묘는 1974년에 발굴된 유구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어 학계에 주목을 받은 분묘이다. 비파형동검은 대부분 지식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sup>34)</sup>, 본 유구를 제외하면 송국리형묘제에서 출토된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비파형동검의 부장을 지식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비파형동검의 경우 송국리문화의 중심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sup>35)</sup>, 또 동검을 부장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시 사회의 계층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sup>36)</sup> 그러나 다수의 송국리문화단계의 유적이 발굴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파형동검이 부장되거나, 혹은 그러한 문화요소가 간취되는 유적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송국리 유적에서 비파형동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호묘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蓋石에 74개의 性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혈도 일반적으로 지식묘의 상석에서 확인되는 것이며<sup>37)</sup>, 석관묘에서 발견된 경우는 송국리유적의 예가 유일하다. 즉, 송국리유적 1호묘는 석관묘의 구조에 있어서 지식묘 요소가 확인되는 동시에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지식묘에 일반적으로 부장되는 비파형동검이 다른 유물들과 공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식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5호묘에서는 二重口緣短斜線文土器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유물에 대하여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38)</sup>, 안정된 층위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자의 주장을 따르면 송국리형묘제에서 출토된 바 없는 토기형식이다.<sup>39)</sup> 또, 분묘의 구조를 보면 판석형 벽석이

34) 금강유역에서 조사된 지식묘 가운데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예는 대전 비래동유적(성정용, 1997. 「大田 新岱洞·比來洞 青銅器時代遺蹟」 『호남고고학의 제문제』(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이 유일하다. 이밖의 지역에서 지식묘 출토 비파형동검이 보고된 예는 李榮文(1998. 「韓國 琵琶形銅劍 文化에 대한 考察」 『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38, 80-82.)의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5) 安承周, 1975. 「扶餘·松菊里 青銅器의 年代」 『月刊文化財』(月刊文化財社)11月號.

36) 崔鍾圭, 1991.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2, 145.

37) 지식묘의 상석에서 성혈이 확인된 예는 이필영·한창균(1987. 「바위구멍의 해석에 관한 시론」 『史學志』(檀國大學校史學會)21, 369.)의 논문에 소개되어 있다.

38) 武末純一, 2002. 「遼寧式銅劍墓와 國의 形成」 『悠山姜仁求教授停年紀念 東北亞古文化論叢』(悠山姜仁求教授停年紀念編纂委員會),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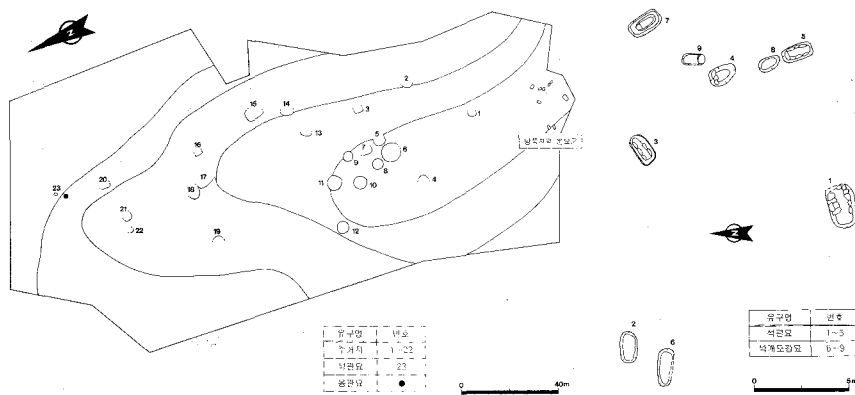
39)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可樂洞類型的 대표적인 토기인데, 대전 신대동유적(성정용, 1997. 「앞글」(주 34))과 청원 황탄리유적(李弘鍾·姜元杓, 2001. 『黃灘里遺蹟』(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가락동유형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함께 지식묘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묘가 조사되어, 이러한 형식의 토기와 지식묘간에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이밖에 여천 적광동 상적유적 2호 석곽묘의 적석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李榮文·鄭基鎮, 1993. 『麗川 積良洞 상적 支石墓』(全南大學校博物館)).

일부 남아있는데, 벽석 뒤편을 다량의 할석으로 채워 일반적인 석관묘 구조와 상이한 형태를 이룬다. 그러므로 5호묘도 1호묘와 마찬가지로 출토유물과 석관의 구조에 있어서 전형적인 송국리형묘제로 볼 수 없는 지식묘 요소가 간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5호묘를 포함하여 4호·6호 석관묘는 하나의 분구 내부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분묘의 축조시기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扶餘 羅福里遺蹟<sup>40)</sup>

나복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주거지 22기와 분묘 11기가 확인되었다(도 7).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구릉 정상부와 동사면에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송국리형주거지이다.

분묘는 조사지역의 북쪽에서 석관묘 1기와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남쪽에서는 석관묘 및 석개도광묘 9기가 조사되었다. 남쪽지역의 경우 유구의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지만, 하부 구조로 판단할 때 석관묘가 5기, 석개도광묘가 4기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1호 석관묘는 장방형의 묘광 내부에서 양쪽 장벽석 일부가 확인되었는데, 한쪽은 3매의 판석을 세워쌓기하여 일반적인 석관묘의 벽석 축조방식을 따른 반면, 다른 한쪽 벽면은 소형의 판석을 가로로 쌓아서 석곽의 벽면 형태를 이룬다. 이 특이한 구조의 분묘는 나복리유적의 청동기시대 분묘 가운데



<도 7> 나복리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배치도 및 남쪽지역 분묘군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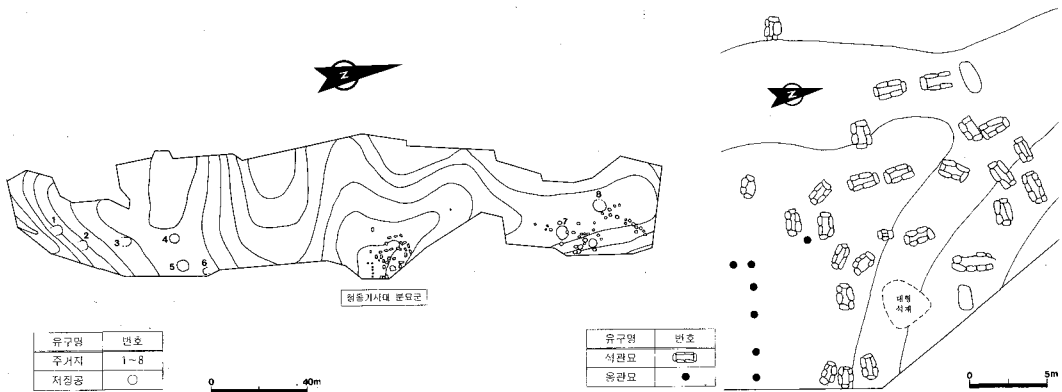
40) 송현정, 2002, 「부여 나복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생업경제』(제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규모가 가장 크며, 유일하게 출토유물로 一段柄式石劍이 확인되었다. 또, 입지상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석관묘 및 석계토광묘가 이 분묘를 둘러싸며 배치되어 있다. 하부구조가 석곽 형태를 이루는 것은 지석묘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묘제 가운데 하부구조로 석곽형태가 확인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묘형태를 지석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1)</sup>

### 3) 公州 山儀里遺蹟<sup>42)</sup>

산의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각각 구역을 달리하면서 위치한다(도 8). 생활유구로는 주거지 8기와 저장용 구덩이 4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유적의 남쪽 구릉에 6기, 북쪽 구릉에 2기가 각각 입지하는데, 이 가운데 5기가 송국리형주거지이다.

분묘유구로는 석관묘 28기와 옹관묘 8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조사지역 동쪽의 비교적 평탄한 구릉부에 위치한다. 조사된 석관묘와 옹관묘는 어느 정도 구역을 달리하여 분포하는데, 大型石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형석은 묘역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그 아래쪽으로 석관묘와 옹관묘가 대형석을 둘러싸는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형석의 하부구조로는 약간의 고임석만이 발견되었으며, 뚜렷한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



〈도 8〉 산의리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배치도 및 분묘군 세부

41) 지석묘의 하부에서 확인되는 묘실의 구조는 한강 이북에서 석관형이, 그 이남에서는 석곽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韓國教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29.).

42) 李南奭, 1999, 『公州 山儀里遺蹟』(公州大學校博物館).

고자는 대형석의 형태가 지석묘의 상석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성격을 석관묘와 관련이 있는 표식적 시설, 혹은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Ⅲ. 類型의 設定

송국리문화단계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양상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sup>43)</sup> 본장에서는 이를 각각의 類型으로 설정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4)</sup>

먼저, 첫 번째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가 공반하는 유형이다. 이를 I 유형이라 명명한다. 이 유형에서는 송국리형묘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지석묘만이 발견된다. 지석묘의 형식은 주교리유적과 죽청리유적에서 탁자식이 1기씩 확인되었으며, 대정동유적에서는 탁자식 2기, 정확한 형식을 파악할 수 없으나 묘광시설이 존재하는 지석묘 1기가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석묘의 양상은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즉, 2개 유적의 지석묘가 유적 내에 단 1기만이 존재하며, 3기가 조사된 대정동유적의 경우도 약 90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분포한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상석 1개와 벽석 2개로 구성된 탁자식 지석묘가 3개 유적 모두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망이 좋은 곳에 단독으로 위치하면서 상석과 2개의 벽석으로 이루어진 지석묘는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적 성격<sup>45)</sup>, 신성한 모임의 장소, 묘역을 표시하는 기념물, 영역을 뜻하는 경계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sup>46)</sup> 이와 관련하여 주교리유적 지석묘의 주변에서 확인된 주공열이 주목된다. 이는 지석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지석묘로 통하는 墓道로서의 구조물로 추정되어, 지석묘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공존하는 유형이다. 이를 II 유형이라 명명한다. II 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보령 평라리유적과 관창리유적이 조사되었다. 분묘군의 분포상태를 보

43) 이밖에 지석묘 요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순수 송국리형묘제로 이루어진 형태를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金承玉(2001, 「앞글」(주 12).)의 논고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본고의 목적이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44) 유형의 개념은 朴淳發(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湖西考古學會)1, 81.)의 논고를 참조하였다. 그의 정의를 따르면 본장에서 세분할 유형의 개념은 송국리유형의 하위개념인 부분유형(Subcultural Assemblage)이라 할 수 있다.

45) 이용조·하문식, 1989, 「한국 고인돌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 『東方學志』(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63.

46) 李榮文, 1993, 『앞책』(주 41), 53.

면, 평라리유적에서는 지식묘, 석곽묘, 석관묘가 二列로 배치되어 있는데, 남쪽열의 석관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분포하는 데에 반하여, 북쪽열의 석관묘는 지식묘와 석곽묘 사이에 위치한다.<sup>47)</sup> 관창리유적 A구역의 경우에도 1기의 지식묘를 중심으로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이를 둘러싸며 배치되어 있어, 두 유적 모두에서 지식묘의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 송국리형묘제가 그 주위에 분포하는 양상이 간취된다. 즉, 두 유적의 분묘 배치상태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지식묘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송국리형묘제와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지식묘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라리유적의 경우 지식묘와 송국리형묘제에서 출토된 유물이 그 종류나 수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입지상의 우위가 위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I 유형과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한다.<sup>48)</sup>

한편, II 유형에 해당하는 두 유적은 분묘의 형식에 있어서 상이함이 간취된다. 우선 평라리유적에서는 지식묘가 3기 확인되어 1기만이 조사된 관창리유적에 비하여 다수임이 확인된다. 또, 평라리유적에서는 지식묘의 요소가 반영된 석곽묘가 4기 확인되었으나 송국리형묘제는 석관묘만이 조사된데 반하여, 관창리유적에서는 석개토광묘와 옹관묘 등의 다양한 송국리형묘제가 확인되어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통하여 평라리유적이 관창리유적에 비하여 지식묘문화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았음이 추정된다.<sup>49)</sup>

마지막 세 번째는 송국리형묘제에 지식묘 요소가 반영된 유형으로, 이를 III 유형이라 명명한다. 이 유형은 지식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지식묘문화의 영향이 I·II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식묘 요소는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인 송국리형묘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지식묘에서 일반적으로 간취되는 속성이다. 지식묘 요소는 유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송국리유적의 경우 1호와 5호 석관묘에서 이러한 요소가 확인되는데, 蓋石에서 발견된 性穴의 존재, 벽석 뒤편에 할석을 채우는 양상, 비파형동검과

47) 평라리유적의 분묘군에 대하여 吳江原(1998, 「앞글」(주 24), 25-27.)은 층위상 위치와 평면 배치상태를 근거로 석관묘가 지식묘·석곽묘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층위간의 간격이 크지 않고, 출토유물의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뚜렷한 시기적 차이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평라리유적의 경우 분묘간의 선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적으로 인정할만한 시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8) 그러나 II 유형 지식묘가 지닌 무덤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토유물에 있어서 무덤 피장자의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는 요소가 적은 것을 볼 때, I 유형과 유사한 상징적 의미가 보다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49) 이는 평라리유적의 분묘군이 지식묘의 일반적인 분포양상인 하천방향의 列狀배치를 이루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二重口緣短斜線文土器의 출토 등이 지석묘 요소로 판단된다. 나복리유적도 1호 석관묘의 한쪽 벽석 축조 방식이 석곽의 형태를 이루어 이를 지석묘 요소라 할 수 있다. 또, 산의리유적의 大型石은 이와 관련된 하부구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석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대형석재<sup>50)</sup>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지석묘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지석묘 요소가 반영된 송국리형 묘제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분묘군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송국리유적의 경우 5호묘는 분묘군이 위치한 구릉의 가장 정상부에 입지하며, 나복리유적과 산의리유적에서는 지석묘 요소가 반영된 분묘와 대형석을 중심으로 송국리형묘제가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Ⅱ유형의 유적에서 지석묘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송국리형묘제와 공존하는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입지상 중심을 이루는 분묘는 규모나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해당 분묘군에서 가장 상위의 위치를 점한다. 송국리유적에서는 1호묘와 5호묘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이 두 유구에서만 비파형동검, 동착, 석검, 석촉, 옥,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의 출토유물이 확인되었다. 나복리유적에서도 1호묘의 규모가 가장 크며, 분묘군 내에서 유일하게 마제석검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하여 Ⅱ유형 지석묘의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有力者<sup>51)</sup>의 분묘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유형별 해당 유적과 그 특징은 다음의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유형별 해당 유적과 특징

유형	유적	특징
I 유형	보령 주교리·죽정리 대전 대정동	송국리형주거지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지석묘가 공반
Ⅱ유형	보령 평라리·관창리	지석묘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송국리형묘제와 공존
Ⅲ유형	부여 송국리·나복리 공주 산의리	지석묘 요소가 반영된 송국리형묘제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분묘군을 구성

50) 蘆嶽眞, 1999, 「形式學 批判」 『韓國上古史學報』(韓國上古史學會)31, 100.

51)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보면,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 있어 제도화된 사회적 계층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유력자, 또는 유력집단의 사회적 신분은 일시적·잠정적인 획득적 지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박양진, 2001, 「韓國 靑銅器時代 社會的 性格의 再檢討」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 200.),

#### IV. 類型別 性格 檢討

전장에서는 각각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분류된 세 가지 유형은 송국리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시기적 선후관계와 공간적 분포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각 유형의 시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유적의 상대적 편년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강유역에 있어서 송국리문화상을 보이는 다수의 유적에 대한 편년 문제는 최근에 발표된 두 편의 논고에서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52)</sup> 그 중심 내용은 외부로부터 해안을 통하여 유입된 송국리문화가 가장 먼저 충남 서해안 일대와 금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후 다시 충남의 내륙과 해안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송국리문화의 전개 양상에서 그 최초 등장시점부터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전과정에 걸쳐 청동기시대 전기유형과의 문화접변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에 安在晔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先松菊里類型→松菊里類型으로의 도식적인 전개과정<sup>53)</sup>을 부정하는 것으로, 송국리문화상에서 청동기시대의 전기적인 요소가 확인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로 편년하던 기존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sup>54)</sup>

필자도 금강유역의 송국리문화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 대체로 찬동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송국리문화의 전개과정을 따를 경우 본고에서 설정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의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송국리문화의 확산과정이 다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유적별 유구·유물상의 상이함이 반드시 시기차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른 집단별 수용양상의 차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sup>55)</sup>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부터 본고의 유형 분류를 시기적인 선후관계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들 유형의 성격은 해당 유적이 위치하는 공간적인 분포범

52) 이홍중, 2002, 「松菊里文化의 時空의 展開」 『湖西考古學』(湖西考古學會)6·7. 禹延延, 2002, 「중서부지역 송국리복합체 연구」 『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47.

53) 安在晔, 1992, 「앞글」(주 4).

54) 宋滿榮(2001, 「앞글」(주 14), 76.)도 송국리문화가 공렬토기문화와는 관련없이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지방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서부지방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유적들을 과도기적 단계인 선송국리형단계로 이해하기보다는 공렬토기문화권과 송국리문화권 사이의 문화적 접변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55) 이홍중, 2002, 「앞글」(주 52), 91.

위를 살펴보았을 때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본고에 제시된 유적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I·II유형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보령·대전지역에 분포하는 반면, III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은 부여·공주지역에서만 확인된다(도 9). 이는 宋滿榮이 언급한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III유형)과 주변지역(I·II유형)의 설정과 일치하는 양상이다.<sup>56)</sup>

이러한 지역 구분에 따르는 양자간의 비교를 통하여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은 공주 남부·부여 동부·논산지역 등이 해당된다. III유형의 특징이 확인되어 지석묘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며, 보다 발달된 농경을 통하여 축적된 잉여생산물을 바탕으로 유력자의 분묘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평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 축조, 외반구연토기의 성행, 옹관묘의 사용, 플라스틱형저장공의 밀집분포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본고에 제시된 부여 송국리유적·나복리유적과 공주 산의리유적 이외에 공주 안영리유적<sup>57)</sup>·장선리유적<sup>58)</sup>, 논산 마전리유적<sup>59)</sup>·원북리유적<sup>60)</sup>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송국리문화의 주변지역은 대전·보령지역 이외에도 청원·천안·아산·서천·익산지역 등이 해당된다. I·II유형의 특징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지석묘문화의 영향이 보다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공렬토기문화와 팽이형토기문화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는 점, 休岩里型住居址의 축조, 직립구연토기 및 구순각목외반구연토기의 성행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보령 주교리유적·죽청리유적·평라리유적·관창리유적, 대전 대정동유적, 서산 휴암리유적<sup>61)</sup>, 천안 업성동유적<sup>62)</sup>, 아산 명암리유적<sup>63)</sup>, 익산 영등동유적<sup>64)</sup> 등이 있다. 한편, 부여 송국리유적의 장방형주거지와

56) 宋滿榮, 2001, 「앞글」(주 14), 77-78. 한편, 이와 관련하여 金承玉(2001, 「앞글」(주 12), 60.)은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의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금강중하류지역을 송국리문화의 중심적 분포권, 서해안 일대와 금강상류지역을 문화혼합지대로 상정하였다.

57) 李尙燁, 1999, 「公州 安永里遺蹟」 『湖西考古學』(湖西考古學會)2.

58) 李 勳, 2001, 「公州 長善里遺蹟 發掘調査 概要」 『第44回 全國歷史學大會 考古學部 發表資料集』(韓國考古學會).

59) 李弘鍾·孫峻鎬·姜元杓, 2002, 『麻田里遺蹟-A地區 發掘調査 報告書』(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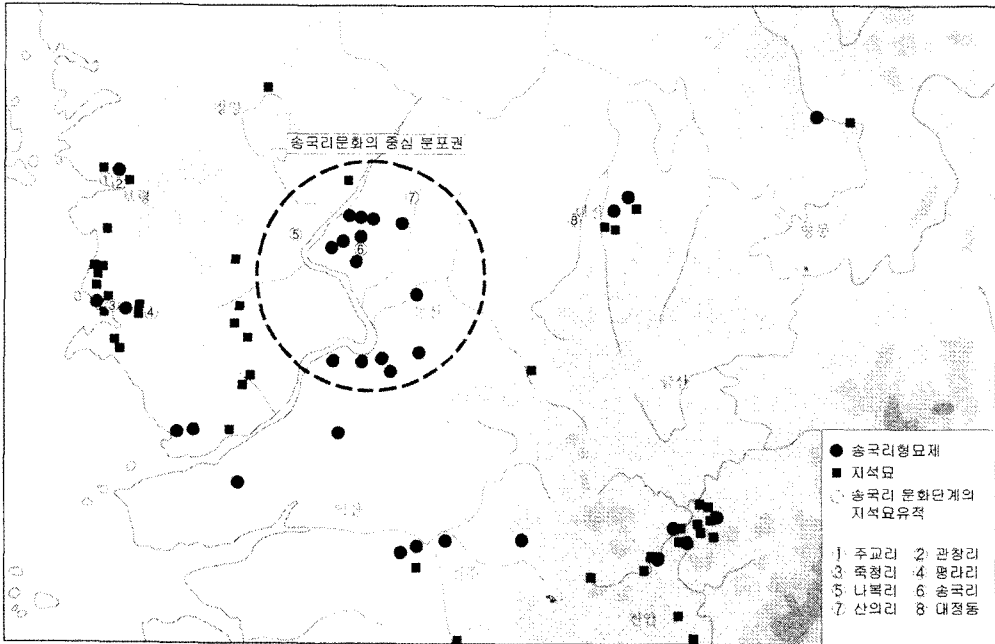
60)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論山 地方産業團地敷地內 論山 院北里遺蹟』.

61) 尹武柄·韓永熙·鄭俊基, 1990, 『休岩里』(국립중앙박물관).

62) 李南奭·李賢淑, 2000, 『새천안번영로 白石·業成洞遺蹟』(公州大學校博物館).

63) 나건주, 2002, 「아산 명암리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第45回 全國歷史學大會 考古學部 發表資料集』(韓國考古學會).

64) 崔完奎·金鍾文·金奎正, 2000, 『益山 永登洞 遺蹟』(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도 9〉 금강유역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의 분포(金承玉, 2001. 「앞글」(주 12), 59.의 도면을 수정 전재)

나북리유적의 휴암리형주거지, 천안 대흥리유적<sup>65)</sup>의 플라스크형저장공 등을 통하여 볼 때,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 사이의 접변이 항상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국리유적은 1974년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석관묘가 발굴됨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문화상을 보이는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어 하나의 문화유형으로서 송국리문화가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파형동검은 송국리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되어 문화의 중심연대와 당시 사회의 계층화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비파형동검은 송국리유적의 경우를 제외하면 송국리문화상을 보

65) 林尙澤, 1999, 『天安大興里遺蹟』(忠南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이는 유적에서 확인된 바 없으며, 남한지역에 있어서는 지석묘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과형동검은 송국리문화의 요소라기보다는 지석묘문화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필자는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결합하는 양상은 3개의 유형으로 설정되었다. 이 가운데 III유형의 유적은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에 해당되며, 지석묘문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I·II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은 송국리문화의 주변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지석묘문화의 영향이 보다 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를 통하여 금강유역에 있어서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는 일정한 지역성을 띠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고의 논지 전개에 있어서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단 몇 개의 유적에서 공통적인 양상이 간취된다고 하여 이를 유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통하여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II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에 보고된 송국리문화의 유적 가운데에서도 지석묘문화의 영향이 간과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행한 유형화의 시각을 바탕으로 유적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지석묘문화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어 왔으나, 지석묘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석묘에서 출토된 유물이 소량이며, 또 지석묘와 동일한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관련유구의 조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발굴자료가 증가한다고 해서 지석묘, 또는 지석묘문화의 성격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의식이 결여되고 연구 방향이 명료하지 않은 발굴조사나 연구로는 몇 백년이 지나도 지석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sup>66)</sup> 그러므로 새롭게 추가되는 자료들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교류 등이 시도

66) 강봉원, 1999, 「한국 지석묘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I)』(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316.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송국리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본고에서 언급된 송국리문화와 지식묘문화와의 관계는 결국 송국리문화와 비송국리문화 사이의 문화접변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즉, 금강유역의 송국리문화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과 주변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양지역의 특징은 IV장의 말미에 제시된 송국리형주거지와 송국리형묘제의 형태, 옹관묘 및 저장공의 존재 유무, 외반구연토기와 직립구연토기의 분포 비율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 마지막으로 본고의 논지 전개와 관련하여 미진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송국리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금강유역 송국리문화의 지역별 특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송국리문화의 발생과 전파문제에 근접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Dolmens Examination of The Phase of Songgookri Culture around Gum River.

Son, Joon-Ho

Dolmens in the phase of Songgookri culture are found or confirmation the examples for the elements of dolmens culture is increasing in recently researched some relics. Although the number of relics showing this aspect is very few,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culture of dolmens and that of Songgookri more specifically through the facts that the investigation is increasing. So this thesis grasps the aspects of dolmens or elements of dolmen, which is verified in the phase of Songgookri culture, in the center of Gum river, where the culture of Songgookri is firstly formed and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culture of Songgookri and that of dolme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aspects that burials of Songgookri type and dolmen are combined are classified as three assemblage. I assemblage is that residential house of Songgookri type is comb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burials of Songgookri type doesn't verified. This assemblage of dolmen has a symbolic meaning rather than function as a grave. These aspects are also verified in II assemblage and one or some dolmens achieve the central area and the phases coexisting with burials of Songgookri type reflect the symbolic meaning of dolmen. Graves that the elements of dolmen are reflected are predominant in III assemblage is the same to II assemblage. However, as burials of Songgookri type differ remarkably with other graves in relics or scale in the center, it is beyond symbolic meaning of dolmen of II assemblage simply and those of influential persons appear.

The relic of III assemblage lays in the core distribution of culture of Songgookri and we can confirm that the effect for dolmen culture was relatively little. However, the relics of I and II assemblage is confirmed in the vicinity of culture of Songgookri and we can find that the influence of dolmen is more mighty. Besides, the culture of Songgookri and that of dolmen have constant region and have influences on mutually in the Gum river.